이중언어 정책과 상업적 자산으로서의 만다린: 제네바 및 홍콩과의 비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세 언어 사이의 제네바

제네바의 위치는 싱가포르의 거울상입니다. 프랑스어는 칸톤(주) 거주자 79%의 주된 언어입니다. 2012년 칸톤 헌법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국가에 그 수호를 맡기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스위스 인구 약 62%의 주된 언어인 독일어가 다수의 언어이자, 실무상 연방 당국의 언어이며, 취리히 금융중심지의 언어입니다. 영어는 많은 기관의 업무 언어이자 제네바 거주자 약 12%의 주된 언어입니다.[1] 제네바는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물려받았고 영어에 맞서 이를 지켜야 하며, 연방 당국을 상대하려면 독일어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와의 차이는 국가의 역할에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역 언어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깁니다. 싱가포르는 언어들에 기능을 부여했고, 한 세대 안에 인구의 언어 생활을 재설계했습니다. 제네바의 프랑스어는 수억 명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화자로 이루어진 시장에도 쓰이는 모국어입니다. 싱가포르의 만다린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모국어"이며, 많은 화자에게는 학습한 언어입니다. 만다린은 중국과 화교라는 매우 큰 시장에 쓰입니다. 두 중심지는 같은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어가 전문직 계층의 가정 언어로 세력을 넓혀 가고 있으므로, 제2언어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홍콩: 양문삼어

홍콩은 중국 비즈니스를 놓고 싱가포르와 가장 가까이 경쟁하는 곳입니다. 홍콩의 정책은 그 목표를 "양문삼어(biliterate and trilingual)"로 표현합니다. 문어로는 중국어와 영어, 구어로는 광둥어, 영어, 푸퉁화를 뜻합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서 5세 이상 거주자의 88.2%가 평소 광둥어를, 4.6%가 영어를, 2.3%가 만다린을 썼습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비율은 58.7%, 만다린은 54.2%였습니다.[2] 홍콩의 중국어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모국어이고, 영어는 학습한 언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점점 그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점의 구성이 다릅니다. 홍콩은 원어민 광둥어, 번체자, 그리고 광둥 및 본토의 법률·규제 체계와의 직접적인 근접성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는 원어민 영어, 간체자, 학교에서 배운 만다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법체계를 제공합니다. 자산을 어디에 둘지 고르는 본토 가족에게 홍콩은 더 가깝게, 싱가포르는 더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K편 제III장에서 그 경쟁을 다시 다룹니다.

숫자로 보기

이중언어 정책: 1966년부터 제2언어 필수; 1987년부터 영어가 학교 체계의 제1언어. 중국어 매체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입학 동기의 33%(1967), 13.75%(1977), 1% 미만(1983); 중국어 계열 마지막 졸업생 1986년. 난양대학교: 1956년 3월 30일 수업 개시, 1980년 8월 16일 마지막 학위수여식. 표준중국어 사용 운동: 1979년 9월 7일 출범. 1979년 3월 버스 조사: 중국계 승객이 중국계 차장에게 방언을 쓴 경우 88.2%, 만다린 3.7%. 가정에서 주로 만다린을 쓰는 중국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6%(1980), 69%(1989). 2020년 중국계 거주자의 가정 언어: 영어 47.6%, 만다린 40.2%, 방언 11.8%. 2020년 5세 이상 전체 거주자의 가정 언어: 영어 48.3%, 만다린 29.9%, 중국어 방언 8.7%, 말레이어 9.2%, 타밀어 2.5%. 2020년 영어를 주된 가정 언어로 쓰는 거주자: 173만 5,242명, 그중 97만 3,515명은 만다린을 제2의 가정 언어로 꼽았고 22만 9,429명은 영어만 사용.[3] 비즈니스 차이나: 2007년 11월 19일 출범.

주

1.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partie J, chapitre III 및 그곳에 인용된 출처: 프랑스어는 제네바 거주자 79%의 주된 언어(2020–2024), 영어 12%(2024); 독일어 및 스위스 독일어는 스위스 인구의 62%; 2012년 10월 14일 제네바 공화국 및 칸톤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and Canton of Geneva) 제5조. ↩

2.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Research Office, *Language policy in Singapore*, ISE21/14-15, 2015년 9월 23일, legco.gov.hk(2026년 11월 최종 접속), 홍콩의 “biliterate and trilingual” 언어교육 정책에 관하여; Wikipedia, “Languages of Hong Kong”(2026년 11월 최종 접속), 5세 이상 거주자에 관한 2021년 인구조사 인용: 평소 사용 언어 광둥어 88.2%, 영어 4.6%, 만다린 2.3%; 구사 능력 광둥어 93.7%, 영어 58.7%, 만다린 54.2%. ↩

3.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Census of Population 2020, “Resident Population Aged 5 Years and Over by Language Most / Second Most Frequently Spoken at Home, Type of Dwelling and Ethnic Group”, data.gov.sg(2026년 11월 최종 접속): 총 3,596,284명; 영어 1,735,242명; 영어만 229,429명; 영어와 만다린 973,515명; 만다린 1,075,172명. 중국계 거주자에 관해서는 위 data.gov.sg 데이터셋 d_68860ef451f948e62754a830b6ae5024. 2020년 비율에 관해서는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2026년 11월 최종 접속): 영어 48.3%, 만다린 29.9%, 기타 중국어 8.7%, 말레이어 9.2%, 타밀어 2.5%.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